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 추진”

박준영 지사 '영산강 프로젝트' 본격화 준설·수질 개선 '친환경' 개발 황포돛배 보다 큰 유람선 운행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영산강 뱃길 복원사업 추진 의지를 공식화함에 따라 하도(河道) 준설과 수질개선, 뱃길 복원을 골자로 하는 '영산강 프로젝트'가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박 지사는 17일 전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산강 프로젝트를 21세기 신(新)영산강시대를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친환경적 뱃길 복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영산강을 이대로 두는 것은 ‘보존’이 아닌 ‘방치’에 지나지 않는다”며 “영산강 뱃길 복원은 수질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고, 치수대책 수립 및 주변의 역사문화 복원을 통

해 영산강을 관광과 산업자원으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지사는 이어 “영산강 뱃길 복원은 운하 개발본이 나오기 전인 지난 2004년에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현 정부의 물류를 염두에 둔 운하와는 큰 차이가 있다”며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운하와는 별개로,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 전남도가 해야 할 일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영산강 뱃길 복원은 시멘트를 바르고 인공으로 수위를 조절하는 그런 운하와는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전제한 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현재의 영산강에 손을 댈 수밖에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17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영산강 프로젝트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없지만, 훼손과 개선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산강 인근 개발방안에 대해서는 “주변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고 자

전거 전용도로와 마라톤 코스를 만드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홍수 시에는 유람 조절기능을 수행하고, 소방용수와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이와 함께 목표에서 광주 경계까지 68km에 이르는 물길을 정비하면 유람과 유속이 달라져 영산강이 살아날 것이며 “뱃길이 복원되면 최근 띄워진 황포돛배보다 좀 더 큰 규모의 배를 만들어, 이 배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사람과 물자를 싣고 오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는 “내년 도 정부예산에 1차로 4천500억 원에 이르는 영산강 뱃길 복원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하고 “영산강 프로젝트를 조기에 완성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가을 무더위 “물이 최고”

낮 최고기온이 32.3도까지 오른 17일 आयु회에 나선 유치원생들이 광주시 북구 중외공원 우물에서 세수를 하며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기상청은 30도 안팎의 ‘초가을 무더위’가 1주일 가량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AIG 긴급 지원’ 금융시장 안정

코스피 하루 만에 1,400 회복 ... 투자심리 개선

미국의 ‘월가 충격’으로 ‘패닉(공황)’ 상태에 빠졌던 국내 금융시장이 하루 만에 급속히 안정을 되찾았다. <관련기사 5·11면>

미 정부가 뉴욕 연방준비은행을 통해 AIG에 850억달러를 지원한다는 소식이 시장을 진정시켰지만 미국발 금융위기가 여전히 진행중이 있어 뚜렷하게 안정세를 찾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내 증시는 미국 정부의 AIG그룹 지원 소식이 전날 낙폭의 절반 정도를 회복했고, 환율도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37.51포인트(2.70%) 상승한 1,425.26으로 마감해 폭락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15.64포인트(3.64%) 급등한 444.93에 마감, 전일 낙폭(6.10%)의 절반 가량을 회복했다.

특히 이날 코스피시장에서 외국인

들은 1천18억원을 순매수하며 3거래일 만에 ‘사자’로 돌아섰다. 개인이 625억원을 순매수해 급속히 얼어붙었던 투자심리가 회복 조짐을 보였다.

환율도 폭등 하루 만에 폭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44원 떨어진 1,116원으로 마감했다.

이같은 전달 대비 하락폭은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 3월23일 82원 폭락한 이후 10년6개월 만에 최대치다.

이날 환율 급락은 미 정부가 뉴욕 연방준비은행을 통해 AIG에 850억달러를 지원한다는 소식과 함께 외국인 주식 순매수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융시장이 뚜렷하게 안정세를 찾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여전히 진행중인 데다 실물경제로의 위기 전이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글로벌 위기에 대해 “금융 쪽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물 쪽은 이제 막 시작이 됐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社告

제35회 광주·전남 여성경제인 포럼

신성호 지원장 ‘디자인과 기업경영’ 강연

19일 광주신앙파크호텔



주제: 강연합니다. 지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디자인진흥원 개발지원본부 호남지원장이 강사로 나서 ‘디자인과 기업경영’이라는 주제로 강연합니다. 지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9월 19일(금) 오후 6시
- 장소 : 광주신앙파크호텔
- 주제 : 디자인과 기업경영
- 강사 : 신성호 한국디자인진흥원 개발지원본부 호남지원장
- 회비 : 1만원
- 문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 (062)523-6028
광주일보사 경제부(062)2200-641

光州日報社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

울릉도 개척민 대부분 전라도 출신

고흥 출신 많아 ... ‘독도’ 지명도 지역 사투리

1882년 고문서 공개

19세기 후반 울릉도 개척민의 대부분은 전라도 출신이었다는 사실이 담긴 고문서가 공개됐다. 이에 따라 ‘독도(獨島)’라는 지명이 전라도 사람들에 의해 지어진 것이라는 학자들의 주장에도 힘이 실렸다.

1882년(고종 19년) 작성된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울릉도 인구 141명 중 82%인 114명이 전라도 출신이었으며, 강원도 14명, 경상도 11명, 경기도 1명 등이었다.

이 자료는 고종의 지시를 받은 이규원이 울릉도 개척을 위해 현지 답사를 마친 뒤 쓴 보고서 형식의 일지로, 원본의 표지는 이규원의 자손에 전해져 현재 제주도

도립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전라도 출신 중에서도 흥양(현재의 고흥) 3도(죽도·순죽도·거문도) 출신이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흥해(여수) 초도 33명, 낙안(순천) 21명 등 순이었다.

울릉도 개척민이 가장 많은 고흥 사람들이 ‘돌로 된 섬’을 부르는 말로 ‘독섬’이라 부르던 것이 ‘독도’라는 지명으로 굳었다는 기존 학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 고흥 인근에는 ‘독도’라는 섬이 있다.

이같은 내용이 실린 자료들은 호남대가 30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제2회 우리 땅 독도 수호 특별전’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전시회는 광주, 목포, 여수, 순천 등에서 열린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살고 싶은 도시가 곳곳으로 퍼져갑니다.

신입직원 채용

1. 채용직위

2. 채용인원

3. 지원자격

4. 지원방법

5. 면접방법

6. 기타사항